

No. 2013-08

# 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02. 18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 경제이슈  
: 아베노믹스, 2단계 조치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## 1 일본경제지표

### □ 주요 경제지표

- 2012년 4/4분기 GDP성장률은 ▲0.4%로 3/4분기보다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었고, 연간으로는 1.9% 기록
- 2012년 무역수지는 수출이 2.7% 감소한 반면, 수입은 3.8% 증가하여 사상 최대인 7조엔 적자
  - \* 對한국 무역수지 흑자는 21천억엔에서 16.7천억엔으로 축소
- 2012년 경상수지는 4.7조엔으로 2011년보다 흑자폭이 대폭 축소
- 2013년 1월 평균 엔/달러 환율은 달러당 89.2엔, 2월18일 현재 93.83을 기록

구분		2010	2011	2012	2012						2013 1월
				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
실질GDP증가율(연율,%)		3.4	0.3	(1.9)	▲ 3.5			▲ 0.4			-
수 출(천억엔)		678	653	(637)	53	50	54	51	50	53	-
수 입(천억엔)		625	697	(707)	58	58	59	57	59	59	-
對한국 수출		54.6	52.1	(49.1)	3.96	3.85	3.98	3.94	3.93	4.35	-
對한국 수입		26.7	32.9	(32.4)	2.78	2.44	2.42	2.70	2.82	2.84	-
직접투자(억달러)		572	1,157	1,223	287			339			-
對한국 투자		11	24	40	4.9			9.4			-
소비자물가(%)		▲ 0.8	0.0	-	▲ 0.2	0.2	0.2	0.0	▲ 0.3	▲ 0.1	-
실업율(%)		4.9	4.5	-	4.3	4.2	4.2	4.2	4.1	4.2	-
경상수지(천억엔)		166.6	76.2	47	6.3	4.5	5	3.8	▲ 2.2	▲ 2.6	-
엔화	對미달러	85.7	79.1	-	79	78.7	78.2	79	80.9	83.6	89.2
환율	對원화	1,321	1,391	-	1,446	1,438	1,439	1,401	1,344	1,288	1,197
외환준비고(기말, 천억달러)		11.2	12.9	-	12.7	12.7	12.8	12.7	12.7	12.7	12.7
은행대출금리(%)		1.57	1.48	-	1.40	1.40	1.38	1.38	1.38	1.36	-

주1) '10, '11년 지표는 회계연도(전년4월~익년 3월), '12년 지표는 역년(1-12월)기준

2) 소비자물가, 실업율, 환율, 대출 금리는 기간평균

자료 : 일본경제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### □ 주요 연구보고서

- 『금후 한일관계와 역사인식문제 : 역사인식의 벽은 왜 발생하는가』 참의원, 2월9일  
\*출처:[http://www.sangiin.go.jp/japanese/annai/chousa/rippou\\_chousa/backnumber/2013pdf/20130201088.pdf](http://www.sangiin.go.jp/japanese/annai/chousa/rippou_chousa/backnumber/2013pdf/20130201088.pdf)
- 『엔저 가속화할수록 무역적자는 확대될 것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2월14일  
\*출처:<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opinion/eyes/pdf/eyes130213.pdf>
- 『수출은 어느정도 고부가가치화 되었는가』 일본경제연구센터, 2월15일  
\*출처:<http://www.jcer.or.jp/column/saito/index450.html>
- 『성장 우호적인 세·연금개혁:거시모델에 의한 효과 시산』 경제산업연구소, 2월15일  
\*출처:<http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dp/13j001.pdf>

## ② 주간 경제이슈 : 아베노믹스 2단계 조치

### □ 아베 총리, 경제계에 임금인상 요청

- 아베총리는 디플레 탈출을 위한 경제계와의 회의에서 경단련, 일본상공회의소, 경제동우회 등 경제 3단체장들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청
  - 아베 총리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민·관 협력 하에 본격적인 디플레 탈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,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촉구
- 요네쿠라 경단련 회장은 경영실적이 개선되면, 기업들이 상여금 형태로 반영할 것이며,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나 고용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

### □ 아베노믹스의 2단계 조치

- 2%의 인플레이목표 설정과 무제한 금융완화가 아베노믹스의 제 1단계 조치라면, 이번 아베 총리의 임금인상 요청은 제 2단계 조치라고 할 수 있음
- 춘투를 앞두고 아베내각이 임금인상 촉구발언을 한 것은 가게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경기회복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
- 최근 산업경쟁력회의에서 대형 편의점 업체인 로손 사장은 법인세 25% 인하를 조건으로 20~40대의 임금 및 고용을 늘리겠다는 제안을 함
  - 로손은 2013년도부터 20대 후반~40대 정규직의 연봉을 평균 3% 인상기로 함

### □ 고용증감세 도입

- 제 2단계 조치의 핵심은 고용증감세로 아베총리가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한 10가지의 긴급정책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임
  - 2013년도 세제개편 시, 종업원의 평균급여를 인상한 기업에게는 급여총액 증가분의 최대 10%를 법인세액에서 공제
  - 고용을 늘리면 법인세를 낮춰주는 고용증감세는 유럽에도 있고 민주당정권에 서도 도입되었으나, 급여증감세는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움

## □ 아베 정권의 정책 선회

- 기업 활동을 중시하는 아베정권이 종업원의 급여인상을 목표로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, 이전 민주당류의 경제정책이 자유를 표방한 데 비하여 자민당류의 경제정책은 보수를 표방하고 있음
  - 정부가 사회보장 등을 통해 가계에 분배, 소비를 늘리려는 것이 민주당류이었으나 실제로는 소비가 증가되지 않고 기업 활동도 위축
  - 이에 무엇보다도 가계에 소득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못한다고 보는 자민당류가 부활하여, 축소균형의 분배정책에서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정책으로 전환
- 자민당류는 과거 코이즈미 개혁에서는 기업재건에 중점을 둔 나머지, 가계에 자금이 충분히 돌지 않았던 점이 디플레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음
  - 나아가, 본격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실업보다는 임금저하를 받아들였다는 점도 디플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음
  - 금융완화에 이어 급여인상을 촉구하는 아베노믹스의 제 2단계조치에는 이와 같은 반성이 녹아 있음
- 이에 아베 정권은 완만한 인플레이목표를 설정함으로써, 기업으로 하여금 현금·예금을 보유한 채로 있으면 손해를 보는 반면,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것이 득이라는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
  - 아베노믹스를 두둔하는 미국 경제학자들은 크루그만, 스티글리츠 등 정부의 배분기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, 이는 1차 아베정권이 작은 정부의 코이즈미 노선을 계승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음

### ③ 경제정책동향

#### □ 아베 정권, TPP 교섭참가 행보 시작

- 미일관계의 초점인 TPP를 둘러싸고, 아베 총리가 교섭참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
  - 자민당조사회가 13일 발표한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교섭참가에 반대한다는 기본방침은 예외품목 설정을 조건으로 교섭참가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
  - 아베 총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성역에 대한 미국의 용인을 끌어내게 되면 교섭참가를 표명할 방침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양보를 요구
  - 조사회의 기본방침은 자민당이 중의원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6개 항목임
    - \* TPP 교섭참가 6개 조건
      - ①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교섭참가에 반대
      - ②자유무역 이념에 반한 자동차 등의 공업제품의 수치목표는 수용 불가
      - ③국민전보험제도 방어
      - ④식품의 안전·안심성 기준 방어
      - ⑤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ISD조항은 합의 하지 않음
      - ⑥정부조달·금융서비스 등은 일본의 특성을 고려함
    - \* 성역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품목 : 쌀(관세율778%), 유제품(360%), 사탕(328%), 소매(252%), 쇠고기(38.5%)
- 아베총리가 TPP교섭참가를 위한 환경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FTA가 국익에 부합하고 성장전략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임
  - 아베 내각은 교섭참가 결정이 늦어지면 룰 제정에서 일본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지도 모르기 때문에, 7월 참의원선거와 최대한 간격을 두고 교섭에 참가함으로써 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해 가겠다는 전략임
- 일본정부는 미국과 물밑 절충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으로부터 성역을 용인한다는 확증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,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와 동일하게 일본도 특별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음
  - 그러나 다른 TPP교섭참가국들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 불가한 품목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역 없는 관세철폐라고 하는 전제에 구멍이 생길 여지는 있다는 견해도 있음
- 일본정부는 지난주 방일한 미국 USTR 커틀러 대표보와 자동차분야의 시장개방 논의를 심화하는 등 美日간 치열한 물 밑 작업이 진행

## □ 경제산업성,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셰일가스 개발·수입에 채무보증

- 모테기 경산대신은 에너지비용 절감책의 일환으로 저가 셰일가스의 개발·수입 등 민간 프로젝트에 대하여 1조엔 한도의 채무보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임을 밝힘
-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화력발전 연료비가 급증한데다, 엔저로 LNG의 수입 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어 일본정부가 이번 지원을 통해서 LNG 조달비용을 절감할 목적
- 경제산업성은 천연가스의 국제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지역간 가격격차로 수입 가격의 하락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, 채무보증으로 셰일가스 관련 프로젝트가 활성화 되면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

## 4 일본기업동향

### □ 일본 정유 업계, 설비폐기와 함께 합종연횡 가능성

- 일본정부의 「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」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유업체들이 중질유 처리장치의 비율향상과 함께 정제능력 감축에 나서고 있음
  - 2010년 동 규제가 도입된 시점에서는 동연제너럴석유와 코스모석유의 대응이 뒤쳐져 이들 2개사의 움직임이 초점이 되었음
  - 동연제너럴석유는 2개 제유소의 일부 설비를 폐기할 방침이나, 석유정제기능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다른 업체에 비하여 고정비용 절감효과는 제한적
  - 코스모석유는 금년 7월 사카이데 제유소를 폐쇄할 예정이나 대기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금년도 중 추가 일부 설비 폐기 또는 분해 장치 증강을 검토하여 기준을 충족시킬 방침
  - JX일광일석에너지는 무로란 제유소, 이데미츠는 토쿠야마 제유소의 석유정제를 2014년부터 중단, 고기능화학품 등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전환을 추진할 방침
- 각 업체들의 대응으로 내년 봄에는 공급과잉해소 문제가 일단락될 것이나, 그렇다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
  - 휘발유분야는 향후 아시아수입품과의 경쟁격화 예상에 따른 저연비차량의 보급과 저출산 등으로, 휘발유의 내수가 2030년에는 현재보다 최대 50% 감소될 것이라는 일본정부의 시산결과도 있음
- 또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전개나 신규 분야 진출이 필요한 만큼 투자부담도 가중
- 게다가 제유소 축소로 업계 내에서 제품유통이나 물류면에서의 제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제휴를 위한 구체적인 대화를 하기가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

## 5 한국관련위치

### □ 韓日 FTA 체결환경 조성

- 일본 민간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(일본종합연구소, 『어떻게 변할 것인가? 한국 신정권하의 경제정책과 대일경제관계』 2013.2.2)에서 한국이 경기회복과 저출산·고령화대책과의 균형을 취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
- 악화된 韓日 관계에 대해서는 韓日 양국이 신정권 수립을 계기로 관계 정상화를 예상
  - 경제면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향후 한층 긴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韓日 양국 정부가 상호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인식하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의 업그레이드된 경제관계를 기대
- 韓日 FTA에 대해서는 일본은 TPP보다 한일 FTA 추진이 용이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  - 그 이유로 한국이 이제까지 체결한 FTA를 보면 국내사정을 감안한 성역(농수산물) 인정한 점에 비추어, 한일 FTA도 한일의 국내 사정을 감안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점을 들고 있음
  - 한국으로서도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이 개선되면 교섭재개에 임할 것으로 보고 있음
  - 이전에는 한국이 대일 공산품 수입에 대한 경계감이 강했으나 현재는 오히려 가전 분야에서 한·일간 역전, 자동차분야에서도 對美수입에 의한 對日수입 대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

### □ 엔저로 한국인 관광객 급증

- 엔저로 한국의 일본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
  - 日中관계 악화로 중국인의 일본관광객수는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
- 특히 돗토리현의 지난 1월 한국인 관광객은 45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배나 증가
  - 돗토리현은 한국인 투어상품을 5년 전부터 판매해왔는데 동일본대지진, 독도 문제 등의 영향으로 한 때는 거의 신청자가 없었으나 금년 들어 급속히 증가
- 엔저·원고로 투어요금이 작년 가을에 비해 약 10% 저렴해 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관광객 유치는 지역진흥을 위해 좋은 기회라고 판단
  - 돗토리현 부지사는 서울에서 여행사들 대상으로 돗토리현에 관한 투어상품의 기획, 판매를 홍보